

##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모형검증

박 원 모

한국학교상담연구소

천 성 문<sup>†</sup>

경성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4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523명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질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은 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부모애착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셋째, 부모애착은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애착의 경우에는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와의 애착관계 역시 어머니 못지않게 중요하며, 특히 친구관계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 부모애착,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천성문,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번지  
E-mail : smcheon@ks.ac.kr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전청소년기(preadolescence)로 이 시기에는 친밀감의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동성의 단짝친구를 통해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한다(Sullivan, 1953). 또한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과 더불어 자율성을 획득하여 이를 조화롭게 키워가야 할 시기로(Richards & Duckett, 1994)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보다 폭넓고 다양한 긍정적 경험을 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즉 이시기의 대인관계는 매우 역동적이며, 대인관계가 적응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아가 친구관계는 일생을 통하여 개인의 복지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견해는 아동기의 친구관계가 성인기 이후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장기 종단연구 등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그런데 친구관계는 또래관계와 자주 혼용되어 왔는데 또래관계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집단 내에서 개인이 맺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를 일컫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연령이 강조되는 반면에(Hartup, 1977), 친구관계는 주로 두 사람의 관계에 국한되어 사용되며, 관계의 친밀함을 내포하고 있다(이은혜, 고윤주, 1999). 이러한 친구관계를 윤진(1984)은 ‘두 사람이 상호 의존하는 개인적인 수준의 관계’로 두 명의 특별한 상호선택에 의해 생기는 양자관계(dyadic relationship)라고 하였는데 이 친구관계는 일방적인 선택 또는 배척에 의한 또래 집단 내의 지위와는 구별된다(Bukowski & Hoza, 1989; Parker & Asher, 1993).

대부분의 아동들은 또래들 중에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한 명 또는 몇

명의 또래들과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킨다. 이 발전된 관계가 친구관계이다. 한 집단에서 함께 놀지만 모두가 친구는 아니며, 많은 또래들 중에서도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친구이다(Parker & Asher, 1993). 또래관계의 또 다른 측면인 친한 친구 관계 또는 우정의 질은 친구관계의 질적인 접근으로, 친한 친구가 있다면 사회적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고(Parker & Asher, 1993), 사회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심희옥, 2000). 또래 지위 및 선호도는 집단에서의 적응 정도나 부적응 정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행동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반면에 친구관계는 자아개념의 증진(Bukowski & Hoza, 1989), 자아존중감이나 도덕성(Bukowski & Hoza, 1989; Hartup, 1983)의 발달 같은 발달의 긍정적 측면에서 또래 지위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며, 아동의 행동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보다는 보호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친구관계는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즉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특징인 친구관계에서의 친밀감은 어머니와의 애착과 유사하여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관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Sroufe & Fleeson, 1986). 그리고 아동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를 넘어 친구와의 관계로 확장됨에 따라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애착과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이숙, 정미자(1995)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또래수용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erns, Klepac

과 Cole(1996)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또래들로부터 잘 수용되고,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홍주영(2002)은 애착을 높게 지각할수록 친구관계 질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볼 때 애착의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기초한 전생애적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애착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친구관계와 비슷한 개념인 또래관계와 애착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거나(고운정, 1999; 김민정, 1990; Jacobson & Willie, 1986; Lafreniere & Sroufe, 1985), 후기아동(정미자, 1995; Kerns, Klepac, & Cole, 1996), 청소년(전효정, 이귀옥, 2000; Kerns & Stevens, 1996)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고,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진행되는 과도기적 특성상 부모자녀관계보다 친구관계의 비중이 커지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으로, 아동의 다양한 영역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적모델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의 경우 모든 영역의 수행에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Harter, 1990) 친구관계 또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사라, 박혜원, 2005; 장재숙, 백경임, 2002). 반대로 낮은 자아개념은 개인으로 하여금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함으로써 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며(Peplau, Miceli, & Morasch, 1982), 특히 아동 및 청소년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부적응을 초래한다(Kahle, Kullka, & Klingel, 1982). 이와 같이 자아개념과 친구관계, 학교생활적응은 상호영향을 주는 관계로(Marsh, 1987; Shavelson & Bolus, 1982)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한 인간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주 양육자와의 안전한 애착에 의해 발달된다. 인간에게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경험은 바로 주양육자와의 안전한 애착이다.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관계의 질은 이후의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와 선택, 자기 평가, 타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장휘숙, 1995). Bowlby(1977) 또한 인생 초기의 애착경험에 대한 정신적 표상들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물론 정서와 행동의 자기규제 능력에 영향을 주어 이후의 대인관계 형성 시에 활성화된다.

자아개념과 애착의 관련성을 연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안정된 애착은 자기존중감과 자기표현력(박은경, 1993; Armsden & Greenberg, 1987), 자아개념(임진영, 장재숙, 2003), 자기효능감(Mikulincer, 1998; Mikulincer, Florian, & Weller, 1993)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민감성, 유관된 반응을 통해 유아는 안정 애착을 하게 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념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개념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roufe, 1979).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모관련요인과 자아개념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연구한 연

구들을 살펴보면 자아개념이 다른 두 변인들 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를 조사한 이은경(1995)의 연구와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장재숙, 백경임(2002), 중국조선족과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어머니의 애착이 미치는 영향 및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이사라, 박혜원(2005)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부모관련 변인과 또래관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박혜원, 이사라(2005)는 중국조선족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로 자아개념의 미완성시기에 있는 초등학교생들의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자아개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중학생시기에 자아개념의(완전 또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은 자아개념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분화되어(Shavelson & Marsh, 1986) 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박혜원, 이사라(2005)의 연구와 장재숙, 백경임(2002)의 연구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를 볼 때 초등학교생의 경우 자아개념이 부모애착과 친구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변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 되는 내적 요인으로써 현재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선택과 도전 상황에도 영향을 준다(Bandura, 1977). Bandura(1977)는 자

기효능감을 주어진 과제를 조직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특정행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예측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강하고 높은지가 행동 동기화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문제 상황에서 강한 자신감과 높은 문제 해결력을 보일 뿐만 아니라(이미숙, 1994; 한기숙, 1994)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귀숙, 정영옥, 이나혜, 2003). 또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능숙한 것으로 나타났다(Wheeler & Ladd, 1982).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은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이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했을 때 아동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 자신감의 발달이 촉진된다(Ainsworth, 1982). 자녀는 부모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여, 발전시키게 되고(Bandura, 1986)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을 미친다(문혁준, 1999).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가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일차적인 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성격의 틀과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가고, 학급 집단에 참여하여 여러 친구들과 사귀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시기이며, 부적응 행동을 수정하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같이 부모와의 애착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먼저 Bowlby(1982)에 의하면 격

려적이고, 지원적이며, 협조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이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유능감을 증진시키므로 양육자에 대한 애착 정도와 개인의 자기효능감 사이의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휘숙(1997a)은 안정된 애착집단이 불안정 애착집단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장휘숙(1997b)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 대상에 따른 애착의 변화와 애착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애착 대상에 대한 애착 정도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들은 부모와 안정적 애착관계에 있을 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정적인 결과들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Wheeler & Ladd, 1982).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자기효능감 역시 자아개념처럼 부모와의 애착과 친구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애착과 친구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애착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이사라, 박혜원, 2005; 이은경, 1993; 정미자, 1995; Kerns, Klepac, & Cole, 1996), 최근 어머니의 취업이 증가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어머니에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기 다른 역할과 영향을

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한 아동의 애착 정도에 따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친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동시에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이 부모애착과 친구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와의 애착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일생을 통하여 개인의 복지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의 문제행동에 보호적 기능을 하는 친구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즉 발달 단계상으로 볼 때 관계의 중요성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구관계로 옮겨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친구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에 개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친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떠한 영역을 포함하여야 할지 등에 대하여 본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방 법

###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 자기효능감, 자아개념, 친구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부애착 연구모형과 그림 2와 같이 모애착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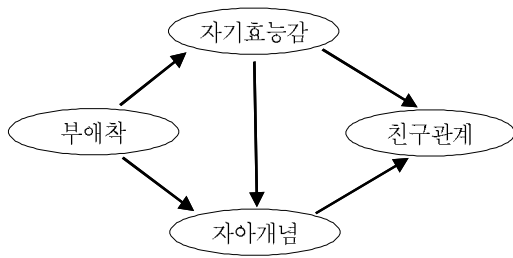


그림 1. 부애착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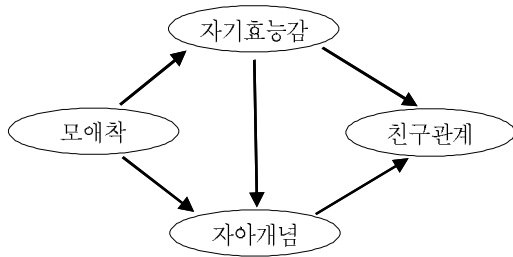


그림 2. 모애착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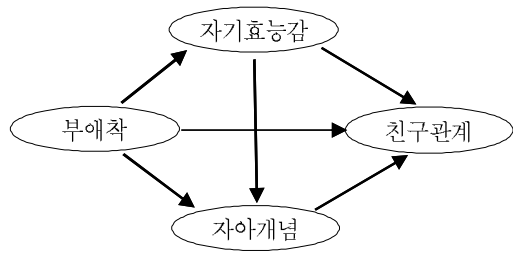


그림 3. 부애착 수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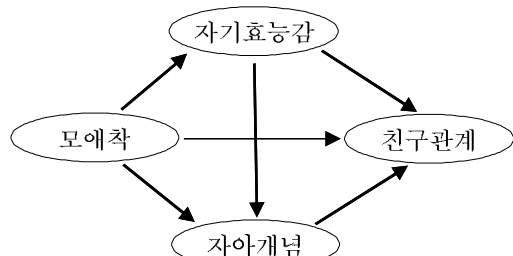


그림 4. 모애착 수정모형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애착과 모애착이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그림 4처럼 부애착과 모애착이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정모형을 각각 설정하였다.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4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임의표집을 하였다. 가정환경 수준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을 달리해 남구, 중구, 동구, 북구에 각 한 학교씩을 임의로 선정한 후 학교마다 4학급씩 총 16학급을 표집 하였다. 검사는 총 534명에게 45분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반응을 누락한 11명의 학생은 제외하고 523명(97.94%)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집은 남학생 294(56.21%), 여학생 229(43.79%)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도구

### 애착 검사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0-20세를 대상으로 제작한 부모 및 또래척도 (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박현선(2005)이 만 11-12세 아동에게 맞도록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PPA-R은 애착의 세 가지 차원(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을 제도록 고안되었다. 의사소통 차원

(10문항)은 부모와 아동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 신뢰차원(9문항)은 부모가 아동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끼고 아동도 부모를 믿음직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내용, 소외 차원(6문항)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결코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Armsden과 Greenberg의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hronbach  $\alpha$ )는 부애착 .89, 모애착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애착 검사의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부애착 .83, 모애착 .83으로 나타났다.

#### 친구관계 검사

상호 우호적인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Mendelson과 Aboud(1999)의 친구관계 척도를 이은혜와 고유주(199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친구관계 측정 검사지는 또래에 대한 긍정적 기능 6가지(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 부정적 기능 2가지(갈등, 경쟁), 그리고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아주 조금 그렇다(1)’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4)’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친구관계 검사의 전체척도 및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긍정적 기능 .92, 부정적 기능 .81, 만족감 .79, 친구관계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 자아개념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개념 검사지는 송

인섭(1987)의 검사를 황순필(1997)이 일반적 자아개념과 학급자아개념, 정서자아개념의 3개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를 초등학교생에게 적합하도록 권선희(2004)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아개념(16문항)은 자아개념 모형에서 하위영역들을 다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총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는 특성이며, 학급자아개념(13문항)은 교실 내 활동에서 아동의 학업에 관계된 것들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정서자아개념(13문항)은 정의적 반응성, 도덕성, 성격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총 42문항으로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권선희(2004)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 검사의 전체척도 및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를 살펴보면 학급자아개념 .75, 일반적 자아개념 .75, 정서자아개념 .78, 자아개념 전체 .89로 나타났다.

#### 자기효능감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Shei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와 Rogers(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김병찬(1995)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제를 성취하는 데서의 자신감(8문항)과 사람을 사귀는 데서의 자신감(5문항)의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결코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검사의 전체척도 및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과제성취 .72, 대인관계 .58, 자기효능감 전체 .67로 나타났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부애착,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간의 구조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5.0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모형의 부합도 지수로 많이 사용되어온  $\chi^2$  대신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chi^2$ 를 사용할 경우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본크기의 영향에 아주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chi^2$ 를 사용하지 않았다(홍세희, 2000). 그러나 서로 포함관계에(nested relationship)에 있는 모형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Breckler, 1990).

본 연구에서 적합도 지수로 CFI, TLI, RMSEA를 사용한 이유는 CFI의 경우 모형의 간명성은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를 측정하며, TLI와 RMSEA의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설명력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CFI,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의 경우에는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mediocre fit),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결 과

부모애착,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상관관계

부모애착,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애착과 친구관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변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

부애착,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표 1. 부모애착,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상관관계

	부애착	모애착	자아개념	자기효능	친구 관계
부애착	-				
모애착	.481***	-			
자아개념	.376***	.191***	-		
자기효능	.271***	.166***	.588***	-	
친구관계	.236***	.063	.398***	.411***	-

\*\*\*p<.001

간의 구조관계와 모애착,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구조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에는 경로계수(path coefficient)가 제시되는데 이는 표준화된 추정치로서, 두 변인 간 효과의 크기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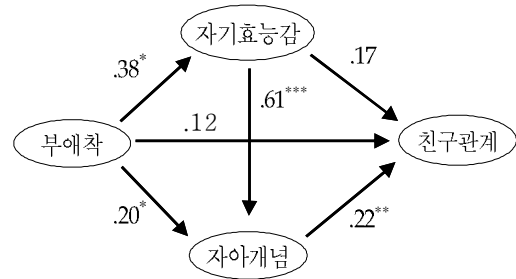


그림 6. 부애착 수정모형

부애착 모형 검증

부애착,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구조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부애착 연구모형을 만들었다.

연구모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i^2 = 175.911$ ,  $df=39$ ( $p$ -값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CFI=0.939, TLI=0.914로 기준치인 0.90이상이며 RMSEA=0.082로 허용치인 0.08을 약간 상회함으로써 연구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애착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경로를 연결하여 그림 6과 같이 수정모형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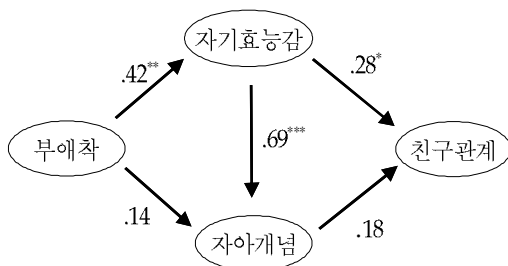


그림 5. 부애착 연구모형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절한 모형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별 부합도 지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모형 또한  $\chi^2 = 169.125$ ,  $df= 38$  ( $p$ -값 $<0.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CFI= 0.941, TLI= 0.915로 기준치인 0.90 이상이며 RMSEA =0.081로 허용치인 0.80을 약간 상회함으로써 수정모형도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만든 두 가지의 부애착 의사소통 모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수정모형의 경우에는 자유도 1의 감소에 따른  $\chi^2$ 의 변화량이  $175.911-169.125=6.786$ 로 유의하게 감소하므로 수정모형이 더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수정모형의 경로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부애착의 부합도 지수

구 분	$\chi^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175.911	39	.939	.914	.082(.070~.095)
수정모형	169.125	38	.941	.915	.081(.069~.094)

표 3. 부애착 경험모형의 구조경로계수

구조경로	경로계수	고정지수(t-값)
부애착 → 자기효능감	.376	5.458***
부애착 → 친구관계	.119	2.488*
부애착 → 자아개념	.198	2.436*
자기효능 → 자아개념	.606	3.494***
자기효능 → 친구관계	.172	1.829
자아개념 → 친구관계	.224	2.906**

\* $p < .05$ , \*\* $p < .01$ , \*\*\* $p < .001$

모애착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모애착,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구조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을 만들었다. 모애착 연구모형은 그림 7과 같다.

본 연구의 모애착 연구모형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i^2 = 116.920$ ,  $df = 39$  ( $p <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CFI=0.963, TLI=0.947로 0.90이상이며, RMSEA=0.062 또한 허용치인 .08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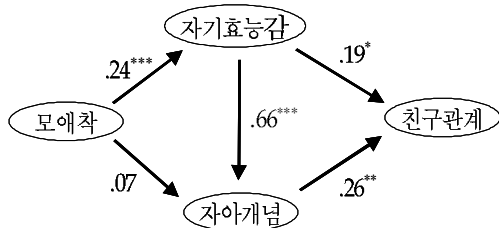


그림 7. 모애착 연구모형

표 4. 모애착의 부합도 지수

구분	$\chi^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16.920	39	.947	.963	.062(.049~.075)
수정모형	113.629	38	.948	.964	.062(.049~.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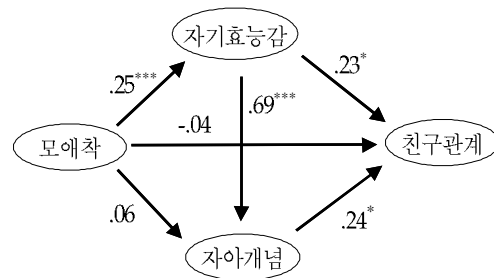


그림 8. 모애착 수정모형

작으므로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경로를 연결하여 그림 8과 같이 모애착 수정모형을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만든 두 가지 모형에 대한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모형 또한  $\chi^2 = 113.629$ ,  $df = 38$  ( $p < 0.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CFI=0.964, TLI=0.948로 기준치인 0.90 이상이며 RMSEA=0.062로 허용치인 0.80보다 작으므로 수정모형도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만든 두 가지의 모-자녀 의사소통 모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수정모형의 경우에는 자유도 1의 감소에 따른  $\chi^2$ 의 변화량이 116.920-113.629

표 5. 모애착 경합 모형의 구조경로계수

구조경로	경로계수	고정지수(t-값)
모애착→자기효능감	.278	4.231***
모애착→자아개념	.231	1.261
자기효능감→자아개념	.139	3.844***
자기효능감→친구관계	.244	1.983*
자아개념→친구관계	.246	3.264**

\*\*\* $p < .01$ , \*\* $p < .001$

=3.291로 유의하지 않게 감소하므로 연구모형이 더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게 안정 애착한 아동일수록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선행연구들(권선희, 2004; 박현정, 2001; 장휘숙, 1995, 1997a, 1997b)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안정성이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과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으로 적응이 양호하다고 밝힌 McCormick과 Kennedy(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

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의 자아개념은 의미 있는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에 기초하여 발달되어 간다(Felker, 1987). 아동들은 사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비추어진 자기모습과 이미 지니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종합하여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조정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변인들 중에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즉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성취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전달되는 중요한 타인들에 의해 반사된 평가, 자기 행동효과의 직접적인 경험, 사회적 비교과정 등을 통해 형성된다(채혜연, 1999). 그러므로 부모와 안정애착이 형성된 아동일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애착이론가들에 의하여 입증된 것처럼 생의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이 내적실행모형을 형성하여 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에도 지속되어 자신에 대한 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애착과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애착의 안정성이 커질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유지선, 2004; 윤순희, 2005; 장휘숙, 1997b; 지수경, 2001; 최은실,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 동시에 신념이다(Bandura, 1977). 아동들은 자기의 능력에 관한 지각을 학업에 관한 능력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즉 자기효능감은 학문적인 능력, 학습을 하기 위한 재능에

대해 지각하는 자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정, 1984).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통해서 획득된다(Bandura, 1977). 부모는 아동과 의사소통을 할 때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충족시켜 주고,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원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성공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사회적, 언어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켜준다. 격려적이고, 지원적이며, 협조적인 부모에 대한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유능감을 증진시키므로 양육자에 대한 애착 정도와 개인의 자기효능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착은 타인으로부터 안정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경우 안정되게 형성되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이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했을 때 아동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에 대한 탐색을 하여 자신감의 발달이 촉진 된다(Ainsworth, 1982). 따라서 부모나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안정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경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내적실행모델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내적실행모델은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게 된다.

셋째, 아버지와의 애착은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애착은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를 연구한 이은경(1995), 어머니 양육태도,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장재숙, 백경임(2002), 중국조선족과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어머니의 애착이 미치는 영향 및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이사라, 박혜원(2005)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이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과 아동의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혜원, 이사라(2005)의 중국조선족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박혜원, 이사라(2005)는 그들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의 미완성시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자아개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중학생시기에 자아개념의(완전 또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은 자아개념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분화되어(Shavelson & Marsh, 1986) 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애착이 모애착 보다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Bowlby를 비롯한 애착 이론가들은 어머니를 일차 양육자로 간주하고, 모-아동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동이 모-유아 애착관

계 형성에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는 아동의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Cowan, Cohn, Cowan, & Pearson, 1996; DeKlyen, Speltz, & Greenberg, 1998).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아버지와의 애착관계 역시 어머니 못지않게 중요하며, 특히 친구관계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것은 부애착 및 모애착 수준에 따라 아동의 친구 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한 손은영(2003)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애착 정도가 높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45명의 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 연구에서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부애착과 모애착의 영향력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발달에서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이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Grossmann(1997)은 민감하고 구성적인 아버지의 놀이행동(아동이 놀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고 아동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필요하다면 정서적, 육체적 지원을 제공해준다)이 아동이 16세가 되었을 때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버지가 야기를 보살피 줄 때 민감성보다는 놀이상황에서 아버지의 민감성-탐색행동을 촉진시키는-이 아버지에 대한 안정된 애착의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아버지가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놀아주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은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 유능감을 습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acdonald & Parke, 1984).

Stroufe(1988) 또한 그의 연구에서 아동들의

아버지와의 애착패턴은 이후의 또래관계의 질을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아버지와의 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채혜연, 1999).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동의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Perry & Bussey, 1984). 즉 어머니는 아동의 주양육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아버지는 놀이친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동을 양육할 때 어머니의 역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Phares & Compas, 1992).

지금과 과거에 비하여 아버지들이 영아의 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연구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애착발달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아버지가 아동의 애착발달에 상이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Brisch, 1999).

위에서 진술한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부모애착과 친구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아개념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분화되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우 자아개념이 애착과 친구관계를 매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에 자아개념의 매개역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생 간의 모형의 차이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자아개념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는 종단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아버지의 애착이 아동들의 친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동들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동의 친구관계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또한 아동의 친구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므로 아버지와 자녀 간의 애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운정 (1999). 5세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또래간 사회적 행동 및 사회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윤주, 김영신, 노주선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65-78.
- 권선희 (2004). 부모-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초등학생의 자기개념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귀숙, 정영옥, 이나혜 (2003). 아동의 애착과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6(2), 259-279.
- 김기정 (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 (1990). 유치원 유아들의 애착유형에 따른 또래수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찬 (1995). 고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 (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외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1.
- 박은경 (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2005).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관계의 질 및 이성교제의 양상.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2001). 아동중기의 애착 안정성과 자기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영 (2003).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신지영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 애착수준, 유능감수준 및 교우관계의 질적 특성간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 (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19-33.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순희 (2005).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윤진 (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전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2(1), 94-113.
- 이사라, 박혜원 (2005).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어머니의 애착이 미치는 영향 및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39-57.
- 박혜원, 이사라 (2005). 부모, 또래 및 교사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적 비교 연구: 한국과 중국 심양 조선족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1), 169-182.
- 이숙, 정미자 (1995). 아동의 또래수용도 및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3(2), 94-113.
- 이은경 (1993). 청소년기 모-자녀간의 애착이 자녀의 사회성과 학문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1995).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1.
- 임진영, 장재숙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주는 영향: 종단적 분석. *초등교육연구*, 16(1), 379-399.
- 장재숙, 백경임 (2002). 어머니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11.
- 장휘숙 (1995). *청소년심리학*. 서울: 장승.
- 장휘숙 (1997a).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1), 80-97.
- 장휘숙 (1997b). 청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중재역할. *인간발달연구*, 4(1), 88-105.
- 전효정, 이귀옥 (2000).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애착전이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애착전이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 185-198.
- 정미자 (1995).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모형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세화 (2003). 애착안정성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학교적응.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수경 (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혜연 (1999).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자아개념 및 또래지위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실 (2001). 애착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주영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1982).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J. Belsky (Ed.), *In the Beginning Readings on infancy*(pp.

- 135-143).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37-454.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as predictor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421-431.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ckler, S. J. (1990). Applic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psychology: *Cause for concern?* *Psychological Bulletin*, 107, 260-273.
- Brisch, K. H. (1999). Bindungsstörungen Von der Bindungstheorie Zur Therapie. 애착장애의 치료 이론에서 실제까지 (2003). 장휘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 year 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Pearson, J. L. (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of linkages. *Journal of Consult & Clinic Psychology*, 64, 53-63.
- DeKlyen, M., Speltz, M. L., Greenberg, M. T. (1998). Fathers and early starting conduct problems: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father-son attachment, and the marital context. *Clinical Child Family Psychol Rev*, 1, 3-21.
- Felker, D. W. (1987). Building positive self-concept.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1987). 김기정 역. 서울: 문음사.
- Grossmann, K. (1997). Infant-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Sensitive challenges during play with toddler is the pivotal feature.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Greca(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 Boston: Allyn and Bacon.
- Hartup, W. W. (1977).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implications and interaction in same and mixed-aged situations. *Young Children*, 32, 4-13.
- Hartup, W. (1983). Peer relations. P. Mussen(ed). *Handbook of Psychology IV*. N. Y: John Wiley & Sons.
- Jacobson, J. L., Tianen, R. L. Willie, D. E., & Aytch, D. M. (1986). Infant-mother attachment and early peer relations: The assessment of behavioral in an interactive

- context. In E. C. Mueller & C. R. Cooper (Eds.), *Process and outcome in peer relationships*. 57-78. Orlando, FL: Academic Press.
- Kahle, L. R., Kullka, R. A., & Klingel, D. M. (1982). Low adolescent Self-esteem Lead to Multiple Interpersonal Problems: A Test of Social-Adap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96-502.
- Kerns, K. A., Klepac, L.,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 of security in the child -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erns, K. A., & Stevens,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3), 323-342.
- Lafreniere, P. J., & Sroufe, L.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56-69.
- Macdonald, K., Park,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 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arsh, H. W. (1987). The big-fish-little-pond effects on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280-295.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Mendelson, M. J., & Aboud, F. E. (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and affect regulation: Strategic variations in self-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420-435.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17-826.
- Parker, J. G., & Asher, S. R. (1993).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plau, L. A., Miceli, M., & Morasch, B. (1982). Loneliness and self-evaluation.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135-151). New York: Wiley-Interscience.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인간의 사회적 발달* (1989). 최상진, 최순영 역. 서울: 성원사.
- Phares, V., & Compas, B. E. (1992). The role of fathers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make room for daddy. *Psychological Bulletin*, 3(3), 387-412.
- Richards M. H., & Duckett, E. (1994)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employment to early adolescent daily experience with and without parents. *Child Development*, 65, 225-236.
- Shavelson, R. J., & Bolus, R. (1982). Self-concept: The inter paly of theory and meth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3-17

- Shavelson, R. J., & Marsh, H. W. (1986). On the structure of self-concept. In R. Schwarzw (Ed.), *Anxiety and cognition*, 305-33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hei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roufe, L. A. (1979). The coherence of individual development: Early care, attachment, and subsequent development issues. *American Psychologist*, 34, 834-841.
- Sroufe, L. A. (1983). Individual patterns of adaption from infancy to preschool. In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 16, 41-85).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roufe, L. A. (1988).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day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83-291.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 In: W. W. Hartup & Z.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Wheeler, V. A., & Ladd, G. W. (1982). Assessment of children's self-efficacy for social interactions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95-805.
- 원고접수일 : 2008. 1. 19.  
게재결정일 : 2008. 3. 28.

## A Study on Parent attachment, Self-concept, Self - 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 of the 6th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Won Mo Park

Korea School Counseling Institute

Seong Moon Cheon

Dept. of Education, Kyungsoo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test the role of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as mediators in the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among the 6th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And then this study investigates structural model(which is divided into two: attachment to father and attachment to mother) and describe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different variables which affect peer relationship. This study tests the role of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as mediators in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with 294 boys and 229 girls who are in the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e results of this structural equation models are following: First Self-efficacy work as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to father and peer relationship, and between attachment to mother and peer relationship. Second Self-concept work as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to father and peer relationship, but self-concept doesn't work as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to father and peer relationship.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Self-concept, Self-efficacy, Peer relationship